



YoungKi Park, Ph.D.  
Information Systems, School of Busines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14년 ICIS 대한 소견을 써 달라는 청탁서를 처음 받았을 때 본인의 짧은 경험에 근거한 글이 오히려 다른 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재차 부탁하는 글에 나름 설득(?)을 당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짧은 생각을 적게 되었습니다. 2006년 미국 밀워키 부터 이번 뉴질랜드 오클랜드 ICIS까지 8번 참석한 경험에 근거해서 제가 바라본 2014년 ICIS 에 대해서 짧게나마 써 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옳고 그른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다양한 시각들 중에 저런 면도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스게 소리같지만 이번 저의 ICIS 경험은 오클랜드공항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방문했냐는 시큐리티 데스크에서의 질문에 “아이시스” 에 참석하러 왔다고 하지 못했고, 그냥 국제 학회에 참석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와튼대 교수 Lynn Wu는 “아이시스” 에 참석하러 왔다고 말한 후 가우똥하는 질문자의 얼굴을 보고 바로 테러단체 “ISIS” 가 아닌 “ICIS” 라고 확인을 시켜서 오해를 풀었다고 들었습니다. 2014 ICIS의 공식 홈페이지가 2번이나 “ISIS” 냄새를 풍기는 곳으로 부터 해킹을 당해서 이상한 아랍계 음악이 흘러 나오곤 했습니다. IT Security가 요즘 갈수록 중요해지고 인기를 끄는 분야로 재부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와 연관된 분야이면서 가장 인기있는 분야로 부상한 것은 당연히 빅데이터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입니다. 911 테러이후 미국의 주요 정보, 국토 보안 기관들은 (FBI, CIA, 국방부 등) 정보를 공유하여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효율적인 테러방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애널리틱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더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애널리틱스 전문가를 구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석사과정을 만들어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IS Job Market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시큐리티 분야에서의 많은 수요로 인해 아주 좋아졌습니다. 2~3년 된 조교수급은 시장에서 찾기 힘든 매물이 되었고, 이번 ICIS는 ABD (All But Dissertation, 졸업을 앞둔 Candidate) 위주의 Job Market이러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즉, 이 분야를 위주로 Information Systems분야는 재 전성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한국에도 얼른 이 훈풍이 도달하기를 바래 봅니다.

이번 ICIS의 주요 연구 주제를 대략 살펴보면 Social, Crowd, Analytics, Collaboration, Design 등이 많이 나옵니다. Social network, social commerce, crowd funding, analytics and design에 관련된 논문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론 면에서는 Econometrics가 거의 모든 논문에서 사용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향은 한편으로 다양성 면에서는 다른 방법론이 줄어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에 비해서 특히 Qualitative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논문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부각된 분야와 주제를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새로운 이론 개발이 줄어들어 가는 지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인도 이번 ICIS의 마지막날에 Grounded Theory Method Workshop에서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를 이용해서 연구중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전에 비해서 그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멤버의 유입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라는 지역적 특성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 참석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만 토론 내용을 보면 Qualitative한 연구로 좋은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주제, 특히 방법론을 다루는 논문들을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ICIS는 일정 내내 날씨가 좋지 않았고, 특히 행사 진행이나 음식 준비 등에서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석한 ICIS중 제일 좋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2017년 서울 ICIS에서는 참가자들이 역대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